

투데이 칼럼

문인 신영규 첫시집

임 실 출신 신영규 작가가 첫시집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를 냈다. 시집은 제1부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제2부 '서러운 밤' 제3부 '노을빛 사랑' 제4부 '고독한 새가 되어' 제5부 '추색(秋色)의 등 뒤에서' 제6부 '그리움은 시가 되고'로 편집했다.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인문학을 생활로 구현한 작가'라고 말한다.

수필 문학을 통해서 생활의 잔잔한 일상에 이야기를 입혀 온 정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과 정성의 바탕에는 문학성을 이루는 서정이 오히려 자리하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그동안 저술들에 드러난 서정은 감직하고, 또한 은유하다. 섬세한 서정성이 그의 속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평이다. 그는 올해로 등단 30년이 됐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영규 작가는 지난 수십 년간 수필과 칼럼만 써왔는데 어느 때부터가 틈틈이 시를 써왔다.

모아온 시를 버리자니 아까워서 오래된 시는 다시 현실에 맞게 고쳐서 이번엔 첫 시집을 냈다고 한다. 시집엔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지만 주로 철학적인 시, 인생을 거론한 시들이 많다.

신영규 작가는 1995년 월간 '문예사조',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국제 PEN전북지역위원회,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수비문학, 전북수필문학회, 한국미래문화연구원, 한국신문학인협회, 임실문인협회, 전북불교문화회 회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순수필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수필집 '숲에서 만난 비' '그리움처럼 고독이 오는 날', 시집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칼럼집 '오프사이드 인생' 등을 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모친과 함께 도로 명명식 참석한 윌 스미스



배우 윌 스미스가 어머니 캐롤라인 브라이트와 함께 28일(현지 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본인 이름을 딴 도로 명명식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윌 스미스가 나고 자란 필라델피아시는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 인근 도로 이름을 변경해 '윌 스미스 웨이'(Will Smith Way)로 명명했다.

美 조지아 공장 준공식서 연설하는 정의선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8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옐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에서 그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신용카드 배송원 사칭 범죄

최근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한 카드회사 배송원으로부터 '카드가 발급돼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 없었던 김 씨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익명의 발신자는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며 피해 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피해 신고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익명의 발신자는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도록 하겠다며 안내했고 김 씨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사칭한 전화에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 같은 피해는 최 모 씨(60대·남)도 겪었다. 최 씨 또한 신용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를 받고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다. 이후 사칭범이

안내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며, 모바일뱅킹은 물론 신용카드가 정지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 들어 두 달여 동안 해당 피해 신고를 93건 접수했다"며,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센터가 밝힌 사례를 보면, 사기 조작은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아는 상태로 배송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배송 중이라고 말했다.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짜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며, 휴대전화에 '해킹 앱' 설치도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려와 금융 관련 요청을 하면 즉시 대응하지 말고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에 먼저 상담 후 대처해야 한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100억원대 시세 차익 등 구체적인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관련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파악했다.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주가 급등 시기 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이 바뀐 뒤 허위성 호재 정보를 통해 주가를 띄운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포럼에 참가란 바 있다.

당시 1천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는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뛰었다.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모 전 블랙핀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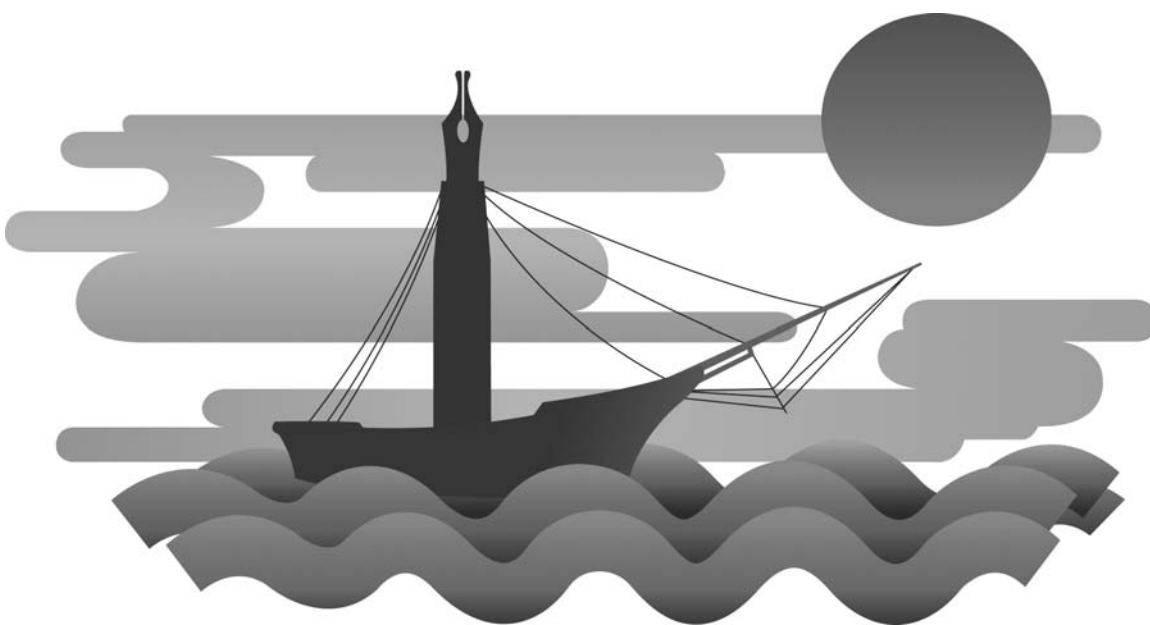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이 모 전 블랙핀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전 해병대 1사단 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 블랙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채팅을 한 것은 그해 5월로, 주가 급등 직전이었다. 이후 야권에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삼부토건은 경영난으로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법정관리 신청 후 증시 거래는 정지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